

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
(2012년 2/4분기)

2012. 8. 3.

해외경제연구소 산업투자조사실

해외투자분석팀

목 차

요 약	II
I. 개 요	1
II. 지역별 동향	2
III. 업종별 동향	6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	9
V. 기 타	10

< 요약 >

□ 2012. 2/4분기 총 해외직접투자(실행기준)는 전년동기 대비 19.5%, 전분기 대비 20.4% 감소한 50.0억 달러 시현

- 지역별로는 아시아, 북미와 대양주, 업종별로는 광업,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 투자

【 지역별 】

□ 주요 지역인 아시아와 북미가 큰 폭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, 대양주와 중남미는 증가세

- 대양주는 광업, 중남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각각 169.3%, 71.7%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아시아 -40.3%, 북미 -42.5%, 중동-74.4% 감소, 유럽, 아프리카는 소폭 증가세

※ 아시아(18.7억 달러), 북미(9.5억 달러), 대양주(8.7억 달러), 유럽(6.1억 달러)

【 업종별 】

□ 광업, 건설업은 증가세인 반면, 제조업, 금융 및 보험업과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소하는 등 대부분의 주요 업종은 감소세

- 광업과 건설업 투자는 각각 36.8%, 330.5% 증가하여 비중이 각각 35.6%, 6.3%에 달함.
- 광업 투자는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 증가(12.2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33.8%)가 주요인

※ 광업(17.8억 달러), 제조업(13.2억 달러), 건설업(3.2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3.2억 달러)

【 투자기업규모별 】

□ 전년동기 대비 대기업 투자비중 감소세

- 대기업의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4.2% 감소하여 그 비중이 전년 동기 82.3%에서 77.6%로 축소

【 투자규모별/지분율별 】

□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금분기 1억 달러 초과 대규모 투자비중은 전체의 26.4%를 차지하여 전년동기(36.1%) 대비 감소

□ 지분율 100%인 투자금액 비중 전년동기 대비 감소

- 한국측 지분율이 100%인 투자금액의 비중은 전년동기 73.2%에서 금분기 72.4%로 소폭 감소

I. 개요

- 2012. 2/4분기 중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19.5%, 전분기 62.8억 달러 대비 20.4% 감소한 50.0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전년동기의 776개에서 19.1% 감소, 전분기의 599개에서 4.8% 증가한 628개를 시현
- 지역별로는 아시아 및 북미가 전년동기 대비 각각 -40.3%, -42.5% 감소세를 보였으며, 주요 업종별로는 광업이 36.8%로 증가한 반면, 제조업은 -30.9% 감소 시현

<표 1>

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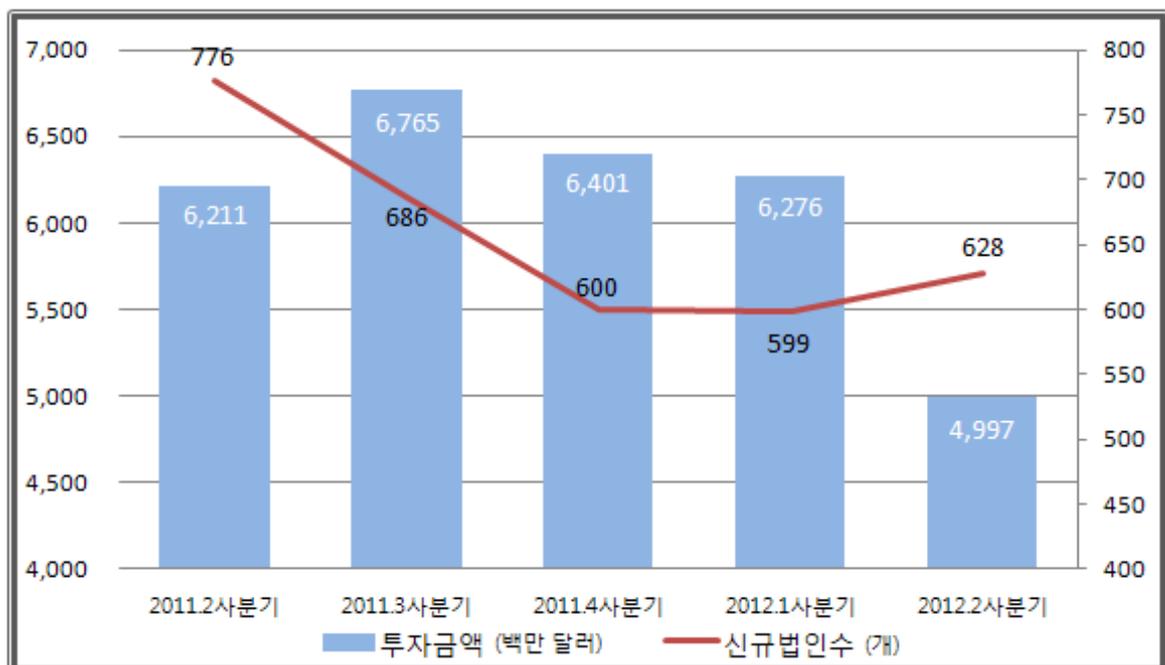
구 분	2010		2011		2011. 2/4		2012. 1/4		2012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전체	24,245	2,868	25,590	2,745	6,211	776	6,276	599	4,997	628
(증감율)	19.3%	15.7%	5.5%	-4.3%	55.3%	5.4%	1.0%	-12.3%	-19.5%	-19.1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- 금분기 투자비중은 지역별 아시아(37.5%), 북미(19.1%), 대양주(17.4%), 유럽(12.1%), 중남미(11.7%) 순이며, 업종별 광업(35.6%), 제조업(26.4%), 건설업(6.3%) 순

<그림 1>

최근 5분기 해외직접투자 추이 (실행 기준)


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국가(억 달러) :
호주(8.4), 미국(7.6), 중국(5.4), 스페인(3.2), 홍콩(2.9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투자자(억 달러) :
A사 (7.7), B사 (3.3), C사 (2.8), D사 (2.0), E사 (1.7)
- ※ 금분기 투자 상위 현지법인(억 달러) :
A사 호주 현지법인 (3.8)
C사 미국 현지법인 (2.2)
D사 스페인 현지법인 (2.0)
B사 호주 현지법인 (1.8)
E사 캐나다 현지법인 (0.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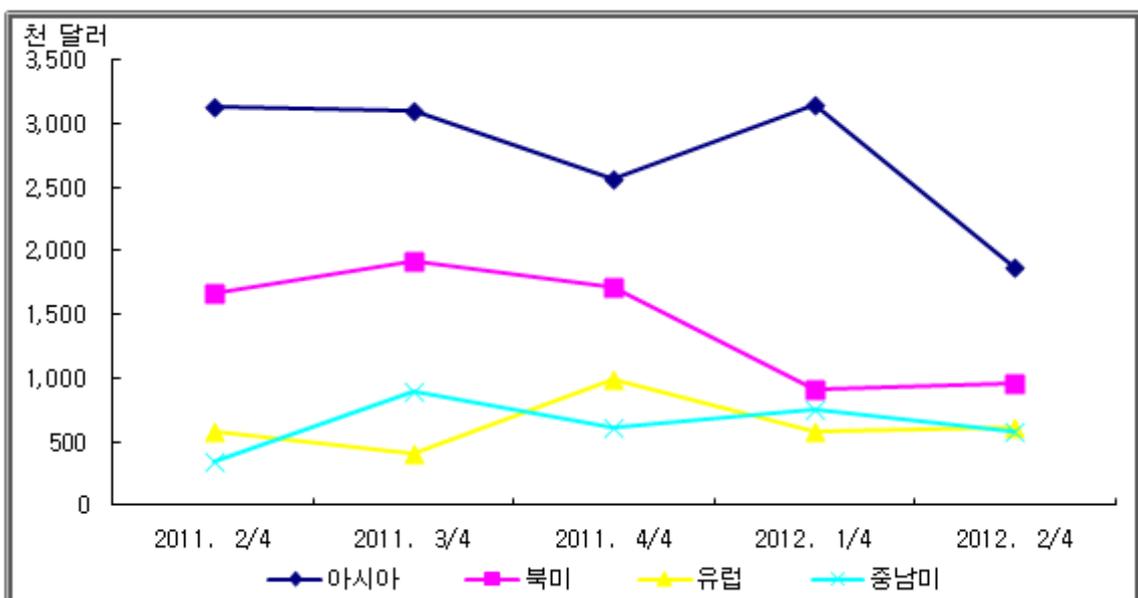
II. 지역별 동향

1. 개관

-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북미가 전년동기 대비 -40.3%, -42.5%의 감소세를 보인 반면, 대양주, 중남미는 169.3%, 71.7%로 큰 폭 증가

<그림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지역별 투자비중은 아시아 37.5%, 북미 19.1%, 대양주 17.4% 순이며, 이 상위 3개 지역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74.0% 차지
 - 전년 동기의 경우 아시아, 북미, 유럽 3개 지역이 각각 50.5%, 26.7%, 9.4%의 투자비중을 보이며 전체의 86.6% 차지
- 국가별로 아시아에서는 중국(5.4억 달러), 홍콩(2.9억 달러), 북미는 미국(7.6억 달러), 대양주는 호주(8.4억 달러)에서 두드러진 투자 실현
- 업종별로 아시아는 제조업(8.3억 달러)과 광업(3.1억 달러), 북미는 광업(4.3억 달러)과 제조업(1.8억 달러), 대양주 제조업(7.5억 달러)과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0.5억 달러) 중심으로 투자

<표 2>

주요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2/4		2012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아시아	6,678	1,579	9,924	1,917	10,440	1,858	3,135	510	1,873	415
(비중)	32.9%	63.7%	40.9%	66.8%	40.8%	67.7%	50.5%	65.7%	37.5%	66.1%
(증감율)	-42.9%	-42.6%	48.6%	21.4%	5.2%	-3.1%	76.2%	2.4%	-40.3%	-18.6%
북미	5,998	535	4,601	552	7,196	460	1,661	149	955	121
(비중)	29.5%	21.6%	19.0%	19.2%	28.1%	16.8%	26.7%	19.2%	19.1%	19.3%
(증감율)	14.1%	-33.8%	-23.3%	3.2%	56.4%	-16.7%	390.4%	21.1%	-42.5%	-18.8%
유럽	5,327	131	6,117	152	3,524	155	583	45	607	26
(비중)	26.2%	5.3%	25.2%	5.3%	13.8%	5.6%	9.4%	5.8%	12.1%	4.1%
(증감율)	57.2%	-33.2%	14.8%	16.0%	-42.4%	2.0%	-56.9%	2.3%	4.1%	-42.2%
중남미	1,041	89	2,138	94	2,257	108	341	32	586	30
(비중)	5.1%	3.6%	8.8%	3.3%	8.8%	3.9%	5.5%	4.1%	11.7%	4.8%
(증감율)	-50.5%	-3.3%	105.3%	5.6%	5.6%	14.9%	45.4%	18.5%	71.7%	-6.3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지역별 동향

가. 아시아

- 투자금액 18.7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40.3% 감소, 신규법인수는 18.6% 감소한 415개
- 국가별로는 중국(5.4억 달러), 홍콩(2.9억 달러), 말레이시아(2.2억 달러), 베트남(2.2억 달러), 인도네시아(1.7억 달러) 순, 중국 투자비중 28.9%
 - 아시아 투자액 중 중국 투자비중 : '09년 32.5%, '10년 36.5%, '11년 34.2%, '12. 1/4분기 29.5%, '12. 2/4분기 28.9%

- 업종별로 제조업(8.3억 달러), 광업(3.1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1.7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1.6억 달러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1.5억 달러) 순, 제조업 투자비중 44.3%
- 아시아 투자액 중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0.9%, '10년 53.8%, '11년 53.5%, '12. 1/4분기 56.7%, '12. 2/4분기 44.3%
- 주요 투자 사업
 - F사의 홍콩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1.0억 달러
 - G사의 말레이시아 광업 투자 : 1.0억 달러
 - H사의 일본 도매 및 소매업 투자 : 0.6억 달러

나. 북미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42.5% 감소한 9.5억 달러 기록, 신규법인수는 18.8% 감소한 121개 기록
- 국가별로는 미국(7.6억 달러), 캐나다(2.0억 달러)
- 업종별로는 광업(4.3억 달러), 제조업(1.8억 달러), 운수업(1.1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7억 달러)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(0.5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광업 투자비중이 45.5%, 제조업은 18.5% 차지
 - 북미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50.3%, '10년 27.7%, '11년 44.1%, '12. 1/4분기 78.9%, '12. 2/4분기 45.5%
 - 북미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11.8%, '10년 7.9%, '11년 7.2%, '12. 1/4분기 10.2%, '12. 2/4분기 18.5%
- 주요 투자 사업
 - C사의 미국 광업 투자 : 2.2억 달러
 - E사의 캐나다 광업 투자 : 0.8억 달러
 - I사의 미국 운수업 투자 : 0.8억 달러

다. 유럽

- 유럽의 금분기 투자금액은 6.1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26개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4.1%, -42.2%를 기록

- 국가별로는 스페인(3.2억 달러), 네덜란드(1.1억 달러), 영국(0.5억 달러), 독일(0.2억 달러), 노르웨이(0.2억 달러) 순으로 투자
- 업종별로는 건설업(2.7억 달러), 광업(1.0억 달러), 제조업(1.0억 달러)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0.7억 달러), 도매 및 소매업(0.3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하여 건설업 투자 비중은 44.1%, 광업 비중은 17.1%
 - 유럽지역 건설업 투자비중 : '09년 1.0%, '10년 0.1%, '11년 2.6%, '12년 1/4분기 0.4%, '12년 2/4분기 44.1%
 - 유럽지역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14.5%, '10년 53.7%, '11년 40.1%, '12년 1/4분기 5.0%, '12년 2/4분기 17.1%
- 주요 투자 사업
 - D사의 스페인 건설업 투자 : 2.0억 달러
 - A사의 네덜란드 광업 투자 : 0.4억 달러
 - J사의 네덜란드 제조업 투자 : 0.4억 달러

라. 중남미

- 금분기 투자금액은 5.9억 달러, 신규법인수는 30개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각각 71.7%, -6.3%를 기록
- 국가별로는 브라질(2.0억 달러), 케이만군도(1.5억 달러) 순으로, 업종별로는 제조업(2.1억 달러), 부동산업 및 임대업(1.2억 달러) 순
- 주요 투자 사업
 - K사의 브라질 제조업 투자 : 0.5억 달러
 - L사의 케이만군도 금융 및 보험업 투자 : 0.5억 달러
 - M사의 브라질 부동산업 및 임대업 투자 : 0.3억 달러

마. 기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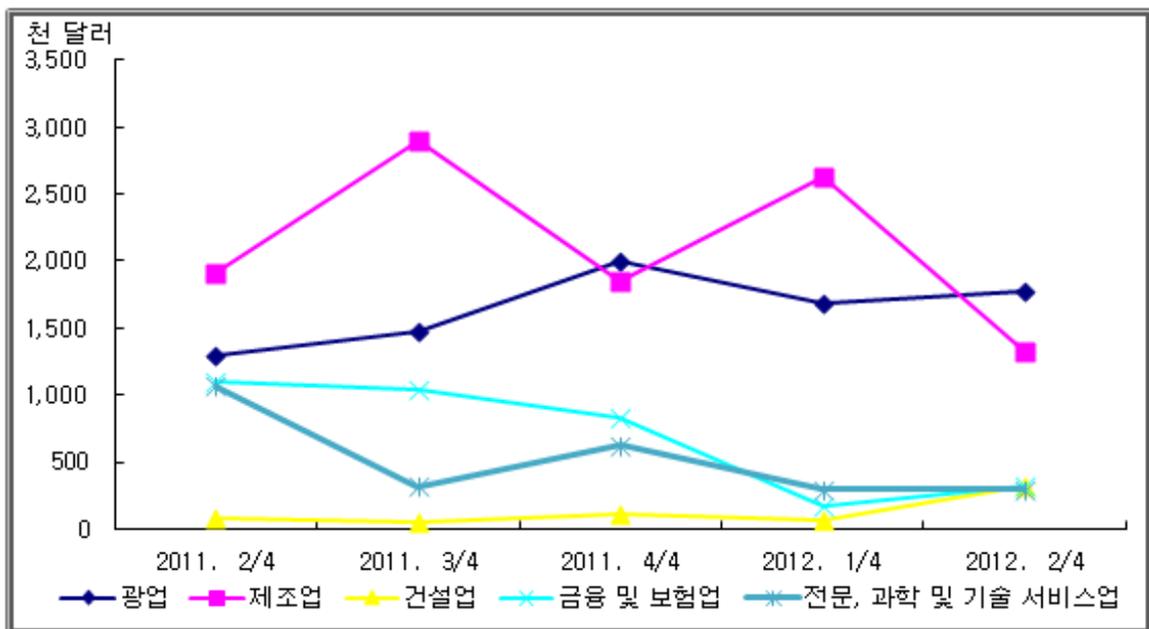
- 전년동기 대비 대양주 169.3%, 아프리카 5.6%의 증가세, 중동은 -74.4% 감소세 시현
- 주요 투자 사업
 - A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3.8억 달러
 - B사의 호주 광업 투자 : 1.8억 달러
 - E사의 마다가스카르 광업 투자 : 0.8억 달러

Ⅲ. 업종별 동향

1. 개관

- 전년동기 대비 건설업 330.5%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 149.6%, 광업 36.8% 증가세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-72.2%, 금융 및 보험업 -71.3%, 제조업 -30.9% 등은 감소

<그림 3> 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



- 주요 업종별 투자비중은 광업 35.6%, 제조업 26.4%, 건설업 6.3%, 금융 및 보험업 6.3%, 도매 및 소매업 5.6% 순을 기록하여 광업이 가장 큰 투자 비중 차지
 - 광업은 호주(7.3억 달러), 미국(3.0억 달러), 말레이시아(2.1억 달러), 캐나다(1.4억 달러) 순, 제조업은 중국(4.5억 달러), 미국(1.5억 달러), 베트남(1.5억 달러), 브라질(1.2억 달러) 순
 -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26.8%, '10년 30.1%, '11년 29.2%, '12년 1/4분기 26.9%, '12년 2/4분기 35.6%
 -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22.4%, '10년 29.4%, '11년 31.1%, '12년 1/4분기 41.9%, '12년 2/4분기 26.4%

<표 3>

주요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2/4		2012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광업	5,440	67	7,295	53	7,464	48	1,302	10	1,780	12
(비중)	26.8%	2.7%	30.1%	1.8%	29.2%	1.7%	21.0%	1.3%	35.6%	1.9%
(증감율)	32.9%	-38.5%	34.1%	-20.9%	2.3%	-9.4%	176.6%	-16.7%	36.8%	20.0%
제조업	4,548	847	7,139	1,118	7,949	1,062	1,910	283	1,320	213
(비중)	22.4%	34.2%	29.4%	39.0%	31.1%	38.7%	30.8%	36.5%	26.4%	33.9%
(증감율)	-35.8%	-39.3%	57.0%	32.0%	11.3%	-5.0%	65.4%	-1.7%	-30.9%	-24.7%
금융 및 보험업	2,001	48	3,261	63	3,429	67	1,096	16	315	12
(비중)	9.8%	1.9%	13.5%	2.2%	13.4%	2.4%	17.7%	2.1%	6.3%	1.9%
(증감율)	-7.3%	-41.5%	63.0%	31.3%	5.2%	6.3%	140.5%	23.1%	-71.3%	-25.0%
도매 및 소매업	1,795	528	1,201	661	1,815	616	260	197	282	165
(비중)	8.8%	21.3%	5.0%	23.0%	7.1%	22.4%	4.2%	25.4%	5.6%	26.3%
(증감율)	-52.1%	-33.2%	-33.1%	25.2%	51.1%	-6.8%	-12.0%	15.2%	8.6%	-16.2%

* 증감율은 전년동기 대비임.

2. 광업

- 금분기 중 투자는 17.8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36.8% 증가, 신규법인수는 12개로 20.0% 증가
 - 에너지 공기업 투자 증가(12.2억 달러, 전년동기 대비 33.8%)가 주요인
- 국가별로는 호주(7.3억 달러), 미국(3.0억 달러), 말레이시아(2.1억 달러), 캐나다(1.4억 달러), 마다가스카르(0.8억 달러) 순으로 투자한 가운데 지역별로 북미 및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이 각각 24.4%, 42.0% 차지
 - 북미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55.4%, '10년 17.4%, '11년 42.6%, '12년 1/4분기 42.5%, '12년 2/4분기 24.4%
 - 대양주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4.7%, '10년 5.5%, '11년 16.9%, '12년 1/4분기 38.9%, '12년 2/4분기 42.0%
- 신규법인수 비중(1.9%)에 비해 투자금액 비중(35.6%)이 상대적으로 큰 바, 법인당 투자규모가 대형화
- 세부 업종별로는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(12.8억 달러) 투자비중이 72.1%, 금속 광업(4.5억 달러)이 25.1% 차지

3. 제조업

- 금분기 제조업 투자는 13.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0.9% 감소, 신규법인수는 213개로 24.7% 감소
 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(0.8억 달러)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0.8억 달러) 투자 감소(전년동기 대비 각각 77.6%, 59.6%)가 주요인
- 국가별로 중국(4.5억 달러), 미국(1.5억 달러), 베트남(1.5억 달러), 브라질(1.2억 달러), 인도네시아(1.0억 달러) 순으로, 아시아 지역(8.3억 달러)이 62.8% 차지
 - 제조업 총투자액 대비 아시아 지역 투자비중 : '09년 60.1%, '10년 74.8%, '11년 70.2%, '12년 1/4분기 67.7%, '12년 2/4분기 62.8%
- 투자금액 비중은 26.4%, 신규법인수 비중은 33.9%로, 법인당 투자금액이 업종 평균치에 가까우며 점차 증가추세임.
- 세부업종별로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2.3억 달러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·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(2.1억 달러), 1차 금속 제조업(2.1억 달러), 전기장비 제조업(1.1억 달러), 의복·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조업(0.9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4. 금융 및 보험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3.2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71.3% 감소, 신규법인 수는 12개로 전년동기 대비 25.0% 감소
 - N사의 금융업 전년동기 투자실적(8.8억 달러) 대비 금분기의 실적 없음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
- 지역별로는 아시아(1.7억 달러), 중남미(0.7억 달러), 대양주(0.4억 달러) 순으로 투자

5. 도매 및 소매업

- 금분기 중 투자금액은 2.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8.6% 증가, 신규법인 수는 165개로 전년동기 대비 16.2% 감소
- 국가별로는 일본(0.8억 달러), 미국(0.7억 달러) 순이며 투자비중은 각각 27.1%, 25.3%
- 세부업종별로는 도매 및 상품중개업(1.7억 달러), 소매업(1.1억 달러) 순

IV. 투자기업 규모별 동향

1. 개관

- 금분기 중 대기업 투자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24.2% 감소로 비중 77.6%로 축소, 중소기업은 0.9% 증가, 비중 18.9%로 확대

<표 4>

기업규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*	2009		2010		2011		2011. 2/4		2012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대기업	16,688	282	20,136	375	20,502	363	5,113	103	3,877	74
(비중)	82.1%	11.4%	83.1%	13.1%	80.1%	13.2%	82.3%	13.3%	77.6%	11.8%
(증가율)	-1.9%	-27.3%	20.7%	33.0%	1.8%	-3.2%	67.0%	18.4%	-24.2%	-28.2%
중소기업	3,319	1,183	3,684	1,359	4,114	1,301	938	354	946	280
(비중)	16.3%	47.7%	15.2%	47.4%	16.1%	47.4%	15.1%	45.6%	18.9%	44.6%
(증가율)	-43.1%	-36.9%	11.0%	14.9%	11.7%	-4.3%	11.8%	1.1%	0.9%	-20.9%

* 개인 및 개인기업 등 제외

- 대기업의 투자액 비중은 77.6%인 반면, 신규법인수 비중은 11.8%에 그쳐, 대기업의 건별 투자금액(0.5억 달러)이 중소기업(3.3백만 달러) 대비 15.5배

2. 대기업

- 업종별로는 광업(16.9억 달러), 제조업(8.9억 달러), 금융 및 보험업(2.5억 달러) 순으로, 광업 투자비중이 43.5%
 - 대기업의 광업 투자비중 : '09년 26.1%, '10년 35.0%, '11년 74.3%, '12년 1/4분기 30.0%, '12년 2/4분기 43.5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13.7억 달러), 대양주(8.1억 달러), 북미(7.8억 달러) 순

3. 중소기업

- 업종별로는 제조업(3.8억 달러), 부동산 및 임대업(1.2억 달러) 순으로 제조업 투자 비중이 39.8%
 - 중소기업의 제조업 투자비중 : '09년 44.2%, '10년 51.5%, '11년 51.5%, '12년 1/4분기 46.8%, '12년 2/4분기 39.8%
- 지역별로는 아시아(4.5억 달러), 중남미(2.1억 달러) 순

V. 기 타

1. 투자규모별

<표 5> 투자규모별 해외직접투자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2/4		2012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50만달러 이하	544	1,956	588	2,167	588	2,167	225	633	201	520
~200만달러 이하	941	285	1,052	380	1,052	380	363	73	310	59
~500만달러 이하	1,321	110	1,393	140	1,393	140	441	36	343	13
~1000만달러 이하	1,126	45	1,359	72	1,359	72	470	11	479	11
~5000만달러 이하	4,106	56	4,439	79	4,439	79	1,345	17	1,722	20
1억달러 이하	2,629	13	2,231	12	2,231	12	1,125	1	625	4
1억달러 초과	9,659	13	13,183	18	13,183	18	2,242	5	1,318	1

- 건당 투자규모 1천만 달러 초과~1억 달러 이하 투자 비중이 전년동기 39.8%에서 금분기 47.0%로 큰 폭 증가, 1억 달러 초과 투자 비중은 36.1%에서 26.4%로 크게 감소

2. 지분율별

- 한국측 지분율 100% 투자 비중은 전년동기 73.2%에서 금분기 72.4%로 다소 감소

<표 6> 지분율별 해외직접투자 현황

(단위: 백만 달러, 개)

구 분	2009		2010		2011		2011. 2/4		2012. 2/4	
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	투자금액	신규법인수
10% 미만	430	21	306	17	178	13	54	5	66	2
~ 50% 미만	1,582	294	2,941	370	2,754	365	464	87	725	83
50%	657	84	192	103	687	94	189	32	102	25
~ 100% 미만	1,609	246	3,634	253	3,352	224	959	54	485	53
100%	16,049	1,833	17,172	2,125	18,618	2,049	4,545	598	3,619	465